

몽골어 성서 번역의 특징 -한국어 성서 번역과의 비교 연구-

이영철*

1. 들어가는 말

외몽골¹⁾과 내몽골²⁾ 등 몽골족의 대표적인 거주 지역에서 기독교 및 신자의 수가 최근 20여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면서 몽골어(Mongolic language)³⁾로 번역된 성경 역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몽골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이 러시아의 칼미크공화국에서 2002년에, 부랴트공화국에서 2010년에 출판되고, 신구약 성경전서가 외몽골에서 2000년, 내몽골에서 2012년에 나왔다. 이 글은 특히 외몽골과 내몽골을 대표할 만한 MUBS역과 MNT역을 중심으로 몽골어 성경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글 성경을 비롯한 기타 외국어 역본들과 비교하려고 한다. 성경전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특성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한국어와 몽골어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므로,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언어를 ‘알타이’란 이름의 동일 언어 군에 편입시켜 각 언어의 특징을 연구해왔다. 지금까지 번역된 몽골어 성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말로 된 성경과 비교하는 이 작업이, 양 언어로 이뤄지는 성경 번역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언어학자들에게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WEC 국제선교회 파송 선교사, 몽골어 성경 번역에 15년째 참여하고 있다.

- 1)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몽골(Монгол улс)을 지칭한다.
- 2) 중국의 영토가 된 내몽골(Өвөр Монгол)은 공식적으로 내이명구(内蒙古) 자치구로 불린다. 이 글에서는 외몽골(Ар Монгол)과 쉽게 대조하기 위해서 내몽골로 표기했다. 중국에는 내이명구 외에도 몽골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중국 내의 모든 몽골족 거주 지역을 내몽골이란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
- 3) Mongolic language는 Mongolian language보다 넓은 개념으로 “범(汎)몽골어” 또는 “몽골어군(群)”으로 번역할 수 있다. 사실 몽골어의 범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명확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외)몽골을 비롯하여,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러시아의 부랴트 및 칼미크 공화국에서 사용되는 몽골어를 몽골어의 범주에 넣기로 한다. 내몽골의 몽골어 사용자는 칼미크 신약성경 녹음을 들으면 대략 70퍼센트 정도 이해한다고 한다.

2. 몽골어 성경의 특징

2.1. 인구수에 비해 번역본이 많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몽골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대략 7백만⁴⁾ 정도 되지만 역사상 지금까지 몽골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의 숫자를 합하면 열셋, 복음서 등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의 종류를 더하면 스물다섯 이상이며 현재에도 여러 팀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여러 종류의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선교지의 보안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역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어 역본 수보다 역본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역본의 종류가 많은 이유를 꼽자면 첫째로 방언의 종류가 많고 사용하는 문자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 사용 문자가 하나 뿐이고 방언의 차이도 비교적 적은⁵⁾ 한국어 성경 역본들과 대조된다. 몽골족은 한 때 유라시아의 방대한 지역을 통치했던 전력이 있어서 오랜 세월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왔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에 따라 말과 문자가 변했고, 이에 따라 여러 개의 성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사는 몽골족은 세로로 쓰는 고유의 전통 문자로 된 성경을 쓰고 있는 반면, 몽골의 할흐 몽골족과 러시아의 몽골계 민족인 부랴트족과 칼미크족은 현재 키릴 문자(Cyrillic script)로 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핏 보아 같은 키릴 문자로 보일지라도, 자모의 수와 모양, 표기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호환되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독일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이 같은 게르만 어파에 속하고 로마자로 그들의 언어를 표기하지만, 성경을 호환해서 사용하지 않고 따로 따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며 세르비아 사람들이 키릴문자로 번역된 성경책과 로마 문자로 번역된 성경책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하다.

둘째로, 20세기 후반이 되기까지 몽골족 가운데 성서 사용 인구가 희소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몽골족을 위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해도 그 성경을 사용하는 토착 교회가 거의 없었다. 번역되면 사용되었던 한국의 상황과 달리, 몽골에서는 번역된 성경이 별로 사용되지 못한 채 세대가 바뀌고 말이 조

4) 외몽골에 270만, 내이명구 자치구에 300만 정도의 몽골어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조: http://simple.wikipedia.org/wiki/Mongolian_language) 여기에 내이명구 외에 중국 각지에 흩어진 몽골어 사용자 및 러시아의 부랴트와 칼미크 등지에 있는 몽골어 사용자 수를 추산해서 합한 수치다.

5) 북한의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에서 1990년 간행한 성경은 남한의 역본에 비해서 방언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씩 달라지니 다시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게 된 정황이 많았다. 19세기 초에 이삭 슈미트(Isaak J. Schmidt)가 펴낸 사복음서, 윌리엄 스완(W. Swan) 및 에드워드 스탈리브래스(E. Stallybrass)가 공역한 성경전서, 1953년 스투어트 군첼(S. Gunzel)이 발행한 신약성경 등 20세기 중반까지 많은 역본이 출판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활발히 사용되지 못한 채 모두 절판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몽골족 가운데 토착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역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번역이 이전보다 쉬워진 이 시대의 특징도 역본의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2.2.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외몽골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내몽골에서는 2003년부터 신명(神名)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⁶⁾ 외몽골에서 이 논쟁은 ‘하나님’에 해당하는 몽골말로 ‘유르튼칭 에젠(Ертөнцийн Эзэн: 직역하면 ‘세상의 주인’이란 뜻)을 채택했던 번역 팀이 ‘보르항’(Бурхан)을 택한 팀에게 “보르항은 ‘부처’(Buddha)를 뜻한다”면서 “불교용어를 성경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난하면서 촉발되었다. ‘보르항’을 채택한 번역 팀은 “보르항은 부처란 말과 어원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 말은 ‘여러 신들 중 최고의 신’을 뜻한다”고 반박했으며,⁷⁾ 이 논쟁은 외몽골의 교회들을 분열시켰고 내몽골 교회로 파급되었다. 2001년에 나온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논란이 몽골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한국에서도 성경 번역 초기에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교회를 분열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던데 비하여, 외몽골과 내몽골에서는 교회 연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엔 이 논쟁이 그나마 많이 수그러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몽골족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하나님을 뜻하는 몽골어는 ‘보르항’으로 통일되고 있는

6) 이 논쟁에 대해 좀더 알기를 원하면 고은이의 “내몽골의 하나님 용어”(『성경원문연구』 18 [2006], 130-141)나 시마무라 타카시(島村貴)의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성경원문연구』 19 [2006], 200-213)를 참조하라.

7) 대한성서공회의 전무용은 ‘보르항’을 ‘뽀’를 뜻하는 ‘보르’(몽골어 ‘бүрээ’[buree])에 ‘크다’를 뜻하는 ‘항’이 합쳐진 합성어로 분석했다. 그는 ‘보르’라는 어근이 알타이어권 전체에 활용됨을 확인한 후 ‘보르항’은 ‘큰 힘을 지닌 능력자’라는 뜻이 되므로 ‘머리’란 뜻을 지닌 ‘탱게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칭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 - 전무용 “A study on the ancient Korean words meaning high in relation with Mongolian terms of deity, ‘Tenger’ and ‘Burkan’”(UBS Asia Pacific ATCON Workshop paper, 2010. 6. 8-12., 7.); 전무용 “머리를 뜻하는 고대 한국어 고찰”, 『한남어문학』 34 · 35 (2011), 175-198.

추세다.



<지도 1> 몽골어 사용자의 4대 거주 지역

위의 지도는 몽골어(Mongolic language) 사용자의 4대 거주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쪽에 러시아 영토인 칼미크공화국에서 시작해서 북쪽의 부랴트 공화국과 중심 지역인 외몽골 및 남쪽의 (중국 소속) 네이멍구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몽골족의 대표적인 거주지인 이 모든 지역에서 대다수의 몽골족 교회가 ‘보르항’으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된 ‘유르튼칭예쟁’이나 ‘사히울승(Сахиулсан)’ ‘데드 탕게르(Дээд Тэнгэр)’ 등의 대체어들은 위의 4대 거주 지역 중 다만 한 지역의 교회에서만 사용되고 있을뿐더러 그 한 지역에서조차 다수 교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몽골성서공회(MUSB: Mongolian United Bible Society)의 총무를 역임했던 D. 다쉬덴데브(Д. Дашдэндэв)는 외몽골 교회들 가운데 90퍼센트가 신명으로 ‘보르항’을 채택한 MUSB(Mongolian United Bible Society)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⁸⁾ 내몽골의 경우 중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가 없지만, 현지 선교사들과 교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보르항’을 신명으로 채택한 성경(MNT: Mongolian New Translation)이 몽골족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성경이라는 점만큼은 확고해 보인다. 현재 러시아의 부랴트공화국의 몽골족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신약성경도, 칼미크공화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약성경도 모두 하나님의 명칭으로 ‘보르항’을 채택했다.

더구나 이 모든 지역에서 몽골말로 번역된 일반 기독교 서적의 대부분이

8) “몽골성서공회 총무 다쉬덴데브를 만나서”, 『성서한국』 53:1 (2007).

하나님의 명칭으로 ‘보르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는 첫 몽골어 성경이 1815년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번역된 여러 종류의 성경도 대부분 ‘보르항’을 신명으로 사용했다.⁹⁾ 특히 구약의 경우 ‘엘’이나 ‘엘로힘’ 곧 하나님을 ‘데드 탕게르’나 ‘유르튼칭 에쟁’으로 옮긴 역본은 2013년 현재 아직 하나도 없다. 또 근대 이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의 유럽어로 기록된 서양의 문학작품을 몽골어로 번역할 때 God, Dieu, Gott, 6or 등의 신명은 모두 ‘보르항’으로 번역했으며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¹⁰⁾

2백여 년에 달하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동서로 7천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독립된 지역에서, 대다수의 번역자와 대다수의 신자들이 ‘보르항’을 신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몽골족의 심성에 가장 보편적이며 적합한 신명(神名)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2.3. 의역한 성경보다는 직역한 성경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외몽골과 내몽골에선 각각 네 종류 이상의 신약성경이 나왔는데, 특기할 사항은 외몽골에서도 내몽골에서도 직역에 가깝게 축자(逐字)번역한 성경이 다수의 교회가 사용하는 대표 역본이 되었다는 점이다. 외몽골에서 1990년대 이후 나온 여러 종류의 신약 역본들을 비교해보면 원문을 풀어서 알기 쉽고 자유롭게 의역한(paraphrased) 존 기븐스(John Gibbens)역이나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이론을 충실히 따른¹¹⁾ 기타무라 아키히테(北村彰秀)역보다, 축자(逐字)번역을 택한 MUBS역 성경¹²⁾이 외몽골의 대다수 교회가 채택한 역본이 되었다. 내몽골의 경우에도 의역한 성경이나, 역동적 동등성 이론을 적용한 역본보다는, 직역에 가까운 역본(MNT)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MUBS역 성경 초판은 NASB역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 원어를 아는 현지인 전문가가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번역 팀을 이끌던 선교사들이 NASB역을 원문에 가장 가까운 직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은 기존의 기븐스역 성경이 지나치게 의역(意譯)되었다고 보았다. MUBS역 성경은 2003년에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개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영어 번역인 NIV보다는 원문에 충실

9) E. 마끄마르틸거르, “몽골어 성경 풀이역 축자역 번역 평가”, 석사학위논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93.

10) Ibid., 94.

11)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성경원문연구』 19 (2006), 210.

12) 2000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하고, NASB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할 것”¹³⁾을 지향했던 직역 중심의 번역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몽골에서도 직역 성경이 교회에서 환영 받는 중요한 이유는 몽골족 신자들 중에 중국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이들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인 이들은 곧잘 몽골어 성경을 중국 성경과 대조해서 읽어보는데, 몽골문자로 번역한 글이 중국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다르면 그 번역본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교회는 화합본(和合本)을 비롯한 직역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역에서 벗어난 번역은 중국내의 몽골족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어렵다. 내몽골 성경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MNT 역이 테트라그라마톤(יהוה)을 ‘예쟁(ЭЗЭН)’[‘주(主)’라는 뜻]으로 번역한 외몽골 성경(MUBS 역)과 달리 ‘여호와’(ЯХУУ)로 번역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에도 많은 성경 역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개역한글판 성경이 오랫동안,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로, 그것이 축자 직역되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4. 한자(漢字)나 외국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성경의 핵심용어(key words)를 거의 모두 중국 한자에서 차용한 일본어나 한국어 성경과는 달리 몽골어 성경은 그 대부분을 토박이말, 곧 본디부터 자신에게 있던 언어자원에서 조달했다.

이 점에 있어서 몽골 성경은 한자 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일본의 성경이 ㉠ 창조(創造), ㉡ 죄(罪), ㉢ 율법(律法), ㉣ 은혜(恩惠), ㉤ 언약(言約), ㉥ 축복(祝福), ㉦ 저주(詛呪), ㉧ 왕(王), ㉨ 선지자(先知者), ㉩ 대제사장(大祭司長), ㉪ 천사(天使), ㉫ 귀신(鬼神), ㉬ 심판(審判), ㉭ 멸망(滅亡), ㉮ 음부(陰府) ㉯ 대속(代贖), ㉺ 십자가(十字架), ㉻ 회개(悔改), ㉼ 구원(救援), ㉽ 칭의(稱義), ㉾ 교회(教會), ㉿ 제자(弟子), ㊀ 성령(聖靈), ㊁ 예배(禮拜), ㊂ 영광(榮光), ㊃ 찬송(讚頌) 등 수많은 핵심용어를 한자라는 외부자원에서 빌린 것과 대조된다.

몽골어 성경은 위의 모든 용어 중 단 하나라도 한자를 비롯한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되는 몽골어는 ㉠부테흐(бүтээх), ㉡누겔(нүгэл), ㉢호일(хууль) ㉣니구셀(нигүүсэл), ㉤게레(гэрээ), ㉥이벨(ивээл), ㉦하랄(хараал), ㉧항(хаан), ㉨이쉬 우출렉치(эш үзүүлэгч), ㉩테르궁 타힐치(тэргүүн тахилч), ㉪텡게르일치(тэнгэрэлч), ㉫처트구르(чөтгүүр), ㉬쉬트겔

13) 시마무라 타카시,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211.

(шийтгэл), ㉑머헬(мөхөл), ㉒우헬스딩 오롱(үхэгсдийн орон), ㉓졸리오스(золиос), ㉔자갈매(загалмай), ㉕겜쉴(гэмшил), ㉖아우랄(аврал), ㉗젍트겜(зөвтгөл), ㉘출경(чуулган), ㉙쉐브(шавь), ㉚아리웅 순스(Ариун Сүнс), ㉛머르겜(мөргөл), ㉜알다르(алдар), ㉝막탈(магтаал) 등으로 모두 고유어들이다.¹⁴⁾

물론 몽골어 자체엔 외래어들이 적지 않고, 몽골어 성경에 ‘총호’(цонх 窓), ‘등’(дэн 燈), ‘장징’(жанжин 將軍) 같은 중국어 외에도 ‘아위야스’(авьяас 재능이란 뜻)라든지 ‘샤스티르’(шастир, 역대기란 뜻)처럼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낱말들도 들어 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용어 대부분을 자체 조달했다는 사실은 몽골어 지리적으로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중국에 더 인접해 있다는 면에서 놀라운 일이다.

성경의 두 번째 책(Exodus) 이름의 경우, 번역자들은 처음에는 한자 문화권인 한국 및 일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출애굽기’ 즉 ‘애굽에서 나옴’(Египтээс гарсан нь)으로 옮겼다가 최근에 ‘탈출(гэтлэл)’로 수정했으며 이후의 개정판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애굽’이란 국명을 성경의 책이름에 포함시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며,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성경의 독특한 선택으로 보인다.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한국, 중국, 일본과 달리, 유목문화의 전통을 이어온 몽골의 언어는 특히 가축 이름에 관한 어휘가 풍부하다. 구약성경에서 “세(ᠰᠡ)”와 “그디(ᠭᠳᠢ)”라는 단어는 한글성경에서 각각 ‘어린 양’과 ‘염소 새끼’¹⁵⁾라는 복합어로 번역되었지만(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도 복합어로 번역), 몽골 성경에서는 각각 ‘호락’(хурга)과 ‘이썩’(ишиг)이라는 독립적인 한 단어로 충분하다. 성경에 나타나는 암낙타(창 32:15, ингэ), 새끼낙타(창 32:15, богго), 암소(үхэр), 수소(үнээ), 수양(хуц), 숫염소(ухна)와 같은 가축의 호칭은 물론 암콤(잠 17:12, эвш), 새끼 곰(бамбарууш)같은 짐승의 호칭도 몽골어로는 복합어 아닌 단일어로 표현할 수 있다. 게다가 히브리 민족이 유목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구약성경에 유목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단어와 지명¹⁶⁾, 구절이 여기저기 지천으로 깔려있다는 점에서 몽골어로 구약을 번역하기란, 농경문

14) 외몽골과 내몽골의 대표적 성경(MUBS역과 MNT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다. 이 두 성경의 용어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각 용어의 어원을 깊이 연구하면 그 기원이 몽골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용어들을 평범한 몽골 사람들은 외래어로 인식하지 않고 사용한다.

15) 영어로는 ‘kid’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 말에는 ‘어린이’란 뜻도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NIV나 NLT, ESV 등 현대역은 ‘kid’대신 ‘young goat’로 번역하는 추세다.

16) 예를 들어, 에스겔 47:10 ‘엔게디(ᠨᠭᠡᠳᠢ) 염소새끼의 샘’나 ‘에네글라이임(ᠡᠨᠡᠭᠯᠠᠶᠢᠮ) 두 송아지의 샘’ 같은 히브리어 지명은 몽골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느낌을 선사한다.

화에 기반을 둔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말로 번역하기보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몽골어에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원어의 뜻에 적합한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단어가 ‘의(義 ᠶᠡᠨ)’라는 말이다. 외몽골 성경(MUBS)은 이 단어를 ‘정직, 솔직’을 뜻하는 ‘쇼다락’(шударга)이란 말에 ‘도리(道理)’란 뜻의 ‘유스(ёс)’를 합쳐서 ‘쇼다락 유스’(шударга ёс)란 말로 번역했지만, ‘의인(義人 ᠶᠡᠨ ᠶᠡᠨ 창 6:9)이란 말을 번역할 때는 ‘바르다, 옳다, 적합하다’는 뜻의 ‘접’(зөв)에다가 ‘사람’이란 뜻의 ‘홍’(хүн)을 붙여서 ‘접트 홍’(зөвт хүн)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의’라는 한 개념을 놓고 ‘쇼다락’과 ‘접’이란 두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보더라도 몽골어에서 성경적 ‘의’의 개념에 근접한 단어를 찾기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백’(confession, ὁμολογία)이란 말도 때로는 ‘선언’이란 뜻의 ‘통학(тунхар)’ 때로는 ‘승인’이란 뜻의 ‘홀렙 접서렐(хүлээн зөвшөөрөл)’, ‘고하다’란 뜻의 ‘어칠(өчил)’, ‘통회’란 뜻의 ‘나명칠랄(наманчлал)’ 등 그때그때 문맥에 맞도록 다양하게 번역했다는 점은 원어의 뜻에 부합하는 한 단어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또 외몽골 성경은 ‘세례’(βάπτισμα)에 부합하는 적합한 말을 찾지 못해 일본의 신개역, 구어역 성경처럼 원어를 음차해서 ‘밧트슴’(баптисм)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개정판(2014년 출판 예정)에서 ‘세례 요한(Ἰωάννης ὁ βαπτιστής)’을 ‘밧티스치(‘치’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접미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밧티스치 요한(баптисч Иохан)’으로 옮기고, 동사인 ‘밧티조’(βαπτίζω)는 ‘밧티스’라는 어근에다가 ‘라흐(-лах)’라는 동사화 어미를 추가하여 ‘밧티스라흐’라는 말을 만들어 번역했다. 이 점에 있어서 ‘밧티조’를 ‘세례를 주다’라고 옮김으로써 ‘주다’라는 낱말을 추가해서 번역한 한글 성경이나 일본 성경과는 구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5. 번역에 있어서 한글성경보다 유리한 문법적 요소들이 많다.

무엇보다 동사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몽골어는 한국어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그 이유는 시제(tense)와 상(aspect)에 있어서 몽골어 어미가 한국어보다 더 다양해서, 한국어 형태소 하나가 몽골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되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예를 들어 과거시제의 경우 한국어의 ‘-았’에 대응시킬 수 있는 몽골어의 어미는 -лаа⁴, -в, -жээ, -сан⁴ 등 여러 개로 세분

17) 강신 외,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 비교 연구』(서울: 한국문화사, 2009), 242.

화되며, 이들은 각각 과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직접인식 가까운 과거’, ‘직접인식 먼 과거’, ‘간접인식 과거’, ‘과거완료’ 같은 시제-양태(mood), 시제-상의 기본 의미도 갖추고 있다.¹⁸⁾ 예를 들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나간 직후 에서가 들어와 축복을 구했을 때 이삭이 그에게 한 말을 『개역개정』은 “네 아우가 … 네 복을 빼앗았다”(창 27:35)라고 옮겼는데, 몽골어 성경은 “빼앗았다도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압척제(авчихжээ, ᠠᠪᠴᠢᠬᠡᠵᠡ)”로 번역했다. 이 말은 어근인 ‘압’에다가 방금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형태소 ‘척’과 간접인식 과거어미인 ‘제’를 연결함으로써, 이 한 동사 속에 ① 야곱이 축복을 빼앗은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정보와 ② 이삭이 이 사실을 여태 몰랐다가 이제야 알아차렸다는 정보 등을 내장시켜 놓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나 일본어, 심지어 서유럽의 언어에도 찾아보기 힘든 형태소가 몽골어 성경 번역에 활용된 한 예가 더러 있다. 예를 들어 전도서 1:4의 한 문장에서 『개역개정』과 내몽골 성경(MNT)을 비교해보자.

[ᠠᠨᠠᠵᠢ ᠶ᠋ᠢᠨ ᠬᠡᠭᠢᠨ ᠶ᠋ᠢᠨ] (전 1:4)

ᠠᠨᠠᠵᠢ	ᠶ᠋ᠢᠨ	ᠬᠡᠭᠢᠨ	ᠶ᠋ᠢᠨ	ᠠᠨᠠᠵᠢ	ᠶ᠋ᠢᠨ	ᠬᠡᠭᠢᠨ	ᠶ᠋ᠢᠨ
닉	우이	니	압쥬	너거	우이	니	이르세르
한	세대	는	가고	또 다른	세대	는	오고

여기에서 ‘오고(comes)’로 번역된 원어 ‘ᠠᠨᠠᠵᠢ’는 분사로서 지속의 뜻을 지닌다. 즉 구세대가 소멸하고 신세대가 생성되는 현상이 지속되며 여러 번 반복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몽골과 내몽골 성경은 모두 ‘ᠠᠨᠠᠵᠢ’를 ‘이르세르’로 번역했는데, ‘이르’는 어근이며 ‘-세르’는 지속의 의미를 지닌 동사어미, 즉 상(aspect)에 해당한다. 『개역개정』은 ‘-고’라는 단순한 연결어미로 번역함으로써 히브리어의 분사가 지닌 지속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반면 몽골어 성경은 자국어에 있는, 지속의 의미를 가진 동사어미를 활용해서 원문의 뜻을 살려낸 것이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기타 한글 역본들,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의 대표적 역본들, 그리고 영어 등 서구 역본들도 히브리어 분사의 의미를 살려 이 문장을 번역할 수 없었지만, 몽골 역본은 할 수 있었다. 지속의 뜻을 지닌 히브리어 분사는 다음 절인 5절(ᠠᠨᠠᠵᠢ)(ᠶ᠋ᠢᠨ), 6절(ᠠᠨᠠᠵᠢ), 7절(ᠠᠨᠠᠵᠢ)에도 나타나는데, 내몽골과 외몽골 역본은 이미 언급한 동사어미를 활용해서 번역했다. 몽골어에는 상(aspect)을 나타내는 형태소만 하더라도 15종류가 넘는다.¹⁹⁾

18) Ibid.

19) Rita Kullmann, *Mongolian Grammar* (Hong Kong: Jenco Ltd., 1996), 426 참조.

시제, 양태, 상의 형태소가 많고 빈번히 활용될 뿐 아니라 사동과 피동 표현이 한국어에 비해 자주 문장에서 사용된다는 점²⁰⁾ 역시 수동태 문장이 잦은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모국어로 번역할 때 몽골어 번역자들에게 한국어 번역자들보다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한국어에는 없는 재귀 소유격 어미(хамаатуулах, reflexive suffix) 역시 몽골어 번역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잠언 28:14하반절을 보자. [הַמִּקְשָׁה לְבָנוּ יִפּוֹל בְּקִרְיָהָ] 라는 히브리어 문장을 『개역개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옮겼는데, 원래 ‘마음’이란 번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마음’을 뜻하는 [לֵב]에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어미인 [ו]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의 마음’ 곧 ‘자신의 마음’을 가리킴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글 성경과 일본어 성경(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에는 ‘자신의’란 말이 부자연스러워선지 생략되어 있어서 누구의 마음을 가리키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몽골어에서는 주어에 귀속되는 목적어 뒤에 붙는 재귀소유격 어미가 목적어인 ‘ᠮᠠᠮᠤ’(마음) 다음에 나와서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임을 명백히 밝혀준다.

ᠮᠠᠮᠤ	ᠪᠠᠨ	ᠬᠠᠲᠤᠯᠠᠰᠢ	ᠭᠠᠢ	ᠳᠤ	ᠣᠨᠠᠨ
주르흐	벤 (재귀소유어미)	하토롤락치	개	도	오난
마음	(자신의)	완악하게 하는 자	재앙	에	빠진다

한국어에서는 자주 쓰지 못하는 단수 2인칭 단수 존대형을 몽골어에서는 자유롭게 쓴다는 점에서도 몽골어 번역이 한국어 번역보다 유리하다. 몽골어는 한국어처럼 2인칭 단수 대명사가 예삿말인 ‘치(чи)’와 존대말 ‘타(та)’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로 표현할 수 없는 한글 역본들과는 달리 몽골어 성경은 쉽게 ‘타’로 번역할 수 있다. 다음의 표를 보면 마태복음 6:9-11의 세 가지 기원에서 한국 역본과 몽골어 역본이 주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알 수 있다.

20) 강신 외,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문법비교 연구』, 354.

헬라어	영어	한국어			몽골어
		『개역 개정』	『표준 개정』	『가톨릭 성경』	외몽골 MUBS(개정)
τὸ ὄνομά σου	your [thy] name	이름이	그 이름을	아 버 지 의 이름을	Таны нэр 타니 네르
τὸ βασιλεία σου	your [thy] kingdom	나라가	그 나라를	아 버 지 의 나라가	Таны хаанчлал 타니 한칠랄
τὸ θέλημά σου	your[thy] will	뜻이	그 뜻을	아 버 지 의 뜻이	Таны таалал 타니 탈랄

즉 위의 도표를 통해 헬라어 원문의 2인칭 단수 대명사 ‘수’(σου)를 번역하지 않고 빼든지, 관형사로, 또는 일반명사로 대치해서 번역한 한국어 역본과 달리 몽골어 역본은 영어 역본들처럼 대명사 그대로 번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성경의 운문을 시적 운율에 맞춰 번역하려고 노력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의 비중은 대략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한다. 몽골문학에서도 시의 비중은 매우 크다. 몽골문학의 3대 봉우리로 보통 <몽골비사(秘史)>와 <게세르 왕(Гэсэр Хаан)>와 <장가르(Жангар)> 등을 꼽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서사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몽골어로 된 노래나 격언, 속담에는 거의 대부분 두운(alliteration)이나 각운(rhyme) 같은 시적 운율이 내장되어 있으며 그 운율은 심지어 일상 관용어에도 깊이 침투해 있다. 몽골의 성경 번역자들도 이전에는 직역하기에 급급했으므로 시적 운율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번역했지만 최근에는 원문의 시에 시적 운율을 입혀 번역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외몽골의 성경 번역자들(MUBS)은 성경의 시와 잠언에 시적 운율을 넣어 대폭 수정한 개정판을 2014년에 출판할 예정이며, 내몽골 성경(MNT)에는 이미 시적 운율이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내몽골의 번역자들이 창세기 2:23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ἄνθρωπος	ἄνθρωπος
인	불(주격 강조 표시어)
이것	은

יאִתְּךָ	אֵלַי	עַמִּי	שִׁירְיָתְךָ	אִתִּי
야스	에즈	민	가르승	야스
뼈	에서(탈격)	나의	나온	뼈

עִמִּי	אֵלַי	עַמִּי	שִׁירְיָתְךָ	עִמִּי	בַּיָּמִים
미혼	에즈	민	가르승	미호	배이나
살	에서	나의	나온	살	이구나

עִמִּי	בֵּרַךְ
테르	베르
그(녀)	(는)

אֵלַי	אַחֲרָי	אֵלַי	אֲחֻזְרָתְךָ	תָּל
이르	후문	에즈	아와드승	틀
남	자	에게서	나왔	으므로

אֵלַי	אַחֲרָי	אַחֲרָי
이르	후문	객드네
여	자(라)	불리겠네

이 번역을 살펴보면 원어의 뜻을 되도록 그대로 살리되, 비록 완전한 시는 못 되더라도 시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뼈’나 ‘살’같이 중복되는 말에 강세가 놓이도록 단어들 을 배열했으며, ‘이르 후문(남자)’와 ‘이르 후문(여자)’ 같은 핵심어가 행의 머 리에 배치되되 두운이 같도록 하여 돋보이게 하는 강조 효과를 시도했으며, 전반부의 끝과 후반부의 끝을 길게 늘어뜨리며 발음할 수 있는 시제어미를 투입하여 각운과 비슷한 청각 효과를 얻도록 했다.

사사기 14:14에서는 몽골의 시적 운율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

אֲחֻזְרָתְךָ	אֵלַי	אֲחֻזְרָתְךָ	עִמִּי
이택치	에즈	이데깁	가렵
먹는 자	에게서	먹이(가)	나왔다

ᠠᠶᠢᠳᠤᠳᠤᠰᠤ	ᠡᠵᠢ	ᠠᠮᠲᠤᠳᠤᠰᠤ	ᠭᠠᠷᠢᠫᠤ
이드튡	에츠	암트튡	가럽
강자	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짧은 운문에서는 몽골시의 가장 큰 특징인 두운(alliteration) 외에도 시적 운율인 요운, 각운도 잘 드러나있다. 무엇보다 각 행의 첫 단어인 ‘이텍치’와 ‘이드튡’이 모두 같은 모음+자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강자’란 말로 ‘이드튡’ 외에도 ‘후치튡’ ‘차달튡’ 등 동의어가 있지만 ‘이드튡’을 선택한 것은 첫 행의 ‘이텍치’와 운율을 맞추기 위함이 분명하다. 특히 두운은 내몽골 구약성경의 시편과 잠언을 비롯한 시가서와 예언서 외에도 주기도문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 배치된 운문의 번역에 널리 적용되었다.

사실 원문의 시가 담고 있는 맛과 멋, 형식과 의미를 번역하려는 언어로 고스란히 담아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몽골어 번역자들이 원문의 뜻을 존중하면서 몽골시의 특징을 살려 번역하고자 노력하는 최근의 추세는 긍정적으로 보아서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7. 몽골어 성서 번역과 한글 성서 번역의 공통점

지금까지 지면의 대부분을 한글 성서 번역과 구분되는 몽골 성서 번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소비했다. 하지만 양자 간에는 이 모든 차이점을 상쇄할 만큼 큰 공통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두 언어가 모두 주어,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SOV 언어로서 기본 어순이 똑같다는 점이다. 따라서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은 기본 어순이 전혀 다른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장들을 몽골어로 옮길 때 한국의 성서 번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나 독일어 같은 SVO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이들은 히브리어의 “키(כִּי)”나 “아세르(אֲשֶׁר)” 헬라어의 “히나(ἵνα)”나 “호티(ὅτι)” 같은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을 번역할 때 원어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이나 몽골의 번역자들은 이러한 부사절이 나올 때마다 원어의 순서를 따라 주절부터 번역할지, 아니면 순서를 뒤집어 부사절부터 번역할지를 놓고 고심할 때가 많다.

또 대명사(특히 3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정통문법에 있어서 3인칭 대명사는 남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다. 동사의 어미가 다양하다는 점, 존대어가 (한국처럼 많지 않지만) 있다는 점 등에서도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공통점에 힘입어 한글 번역본들은 몽골어 성서 번역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인은 몽골 번역자들의 유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은 외몽골(MUBS역)과 내몽골(MNT)의 성경 번역에 초창기부터 관여해왔으며, 현재 외몽골과 내몽골 성경 번역뿐 아니라 몽골어군에 속한 소수 부족의 성경 번역에도 여러 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선교지의 보안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3. 몽골어 성경 번역의 약점과 전망

몽골어 성경 번역의 중요한 문제점은 선교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몽골인들 가운데 번역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 성경 번역을 공부했거나 배우고 있는 몽골인은 더러 있으나 아직 그들의 지식이 실제 번역에 크게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외몽골 성경전서(MUBS)의 경우 번역 초기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전보다 영어역 NASB에 크게 의존했고, 성장하는 교회의 시급한 요구 때문에 서둘러 번역하다 보니 2000년에 나온 초판에는 번역 투의 문장이 많고 심지어 문법적인 오류도 많아서 2004년 개정판에서 기본적인 문법 오류를 많이 수정했다. 그러나 영어에서 옮기다 보니 “맛멘(Madmen)” (렘 48:2)이라는 지명을 “미친 사람들(Галзуу хүмүүс)”로 오역한다든지, 영어의 2인칭 대명사 ‘you’를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오역한 곳이 적지 않고 병행구절(parallel passages) 안에 완전한 일치를 이룬 부분을 각각 다르게 번역하는 등 명백한 오류들이 포함된 번역본이 최근까지 사용되었다(MUBS는 이러한 오류들을 시정한 개정판을 2014년 출간될 예정임). 게다가 번역 위원장이 도중에 사임하고 번역자들의 대부분이 교체됨으로써 내년에 출판될 개정역은 성향이나 문체가 일관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몽골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어나 중국어의 위세에 눌려 몽골어(Mongolic language) 사용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오래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몽골족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 성경의 사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다양한 몽골어 역본이 있어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성경 번역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몽골인의 숫자 및 교회의 성경 지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외몽골 외의 지역에서는 중국어 성경이나 러시아어

성경과 비교해서 몽골어 번역의 질을 비판하고 평가할 현지인들이 많다는 점 등에서 몽골어 성경 번역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는 말

최근 20여 년 동안 세계 도처에 흩어진 몽골족 사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몽골어(Mongolic language)로 번역된 성경의 종류가 크게 늘어났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몽골어 성경들의 특징,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와 몽골어 번역의 차이점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몽골어는 지역과 방언의 편차가 커서 인구에 비해 역본의 종류가 많다는 점, 하나님의 명칭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 한국어나 일본어 성경과는 달리 비해 한자 등 외국어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 번역에 유리한 문법적 특성이 몽골어에 많다는 점, 시를 시로 번역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 아직 현지인들 가운데 번역 전문가들이 적다는 점 등의 특징을 거론했다.

하지만 한국어와 몽골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상쇄할 만한 큰 공통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주어,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SOV 언어로서 어순이 거의 똑같다는 점이 가장 뚜렷한 공통분모가 된다. 3인칭 대명사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 점, 동사의 어미가 다양하다는 점, 존대어가 (한국처럼 많지 않지만) 있다는 점 등에서도 비슷하다.

이러한 공통점에 힘입어 한국어 성경 및 한국인의 성경 번역 경험은 몽골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은 몽골어 성경 번역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한편 몽골인 교회 안에도 성경 번역의 전문가가 생기고 경험과 지식들이 쌓이고 있어 기존 성경의 개정 및 새 번역에 있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몽골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학계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주요어>(Keywords)

성경 번역, 몽골어, 보르항, 몽골 성경, 내몽골 성경.

Bible translation, Mongolic languages, Burkhan, MUBS, MNT.

(투고 일자: 2013년 8월 2일, 심사 일자: 2013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9월 3일)

<Abstract>

Features of Bible translations in Mongolic languages in comparison with Korean Bible translations

Mr. Youngcherl Lee

A dozen of new Bible translations in Mongolic languages have emerged in recent two decades, in tandem with the rise of Christian churches and believers among Mongolian tribes, from Kalmykia in the west through Buryatia and (outer) Mongolia to Inner Mongolia in the eas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eatures of Mongolian Bible versions, particularly the two most popular versions: the MUBS version in Outer Mongolia and the MNT in Inner Mongolia, in comparison with Bible versions in Korean, a language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classified under the same Altaic group with Mongolian.

The controversy seems ebbing away in regard to the Mongolian term for God, now that “Burkhan (Бурхан)” has been chosen as the best word to describe Biblical God by the translators of most popular Bible versions as well as by majority of churches, whether in Outer or Inner Mongolia, Kalmykia or Buryatia. In contrast, none of the other alternatives has won a major support even in one of the four key regions where the Mongolic speakers dwell. The most popular version, using “Burkhan” for God, is also the version most literal in its translation style (like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versions following dynamic equivalence or paraphrased translation, both in Inner Mongolia and in Outer Mongolia.

Biblical key terms in the Mongolian versions are rather independent from foreign influences, compared with those in Korean or Japanese versions which had to import vast majority of the key terms from ‘hanzi’, the Chinese characters.

Mongolian Bible translations, compared with Korean counterparts, reflect not only cultural advantages arising from nomadic traditions akin to Hebrew nomadism, but also some grammatical advantages such as a rich stock of suffixes to express tenses and aspects as well as more freedom to use honorific second singular pronoun.

In recent years Mongolian translators are showing an unprecedented ardor in

the translation of Biblical poetry, to apply Mongolian rhythms (characterized in particular by alliteration), which penetrates deeply into Mongolian idioms and literature.

Despite the short experiences and the current shortage of translation experts as well as concerns over diminishing number of Mongolic-language speakers out of Mongolia, Mongolian Bible translations today seem to be gaining momentum in parallel with the waxing of Christianity at home and the surge of Mongol students learning Bible translation abroad, getting ready to make inroad into minor Mongolic-speaking tribes with no Scriptures yet in their own language.